

200자 안내

이 어둠 속에 작은 촛불 하나로

安泰景 지음

시인이며 교육자이기도 한 저자의 첫 에세이집. 인간과 자연, 작은 소망들, 교육에 대한 염원 등 삶의 편린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出藍」 「방랑기」 「삶의 질」 등 수필과 컬럼들 속에서 “수필의 재미는 은은하게 드러나는 그 사람의 품격과 나직한 목소리 속에 번뜩이는 참신한 시각에 접할 수 있을 때 얻어진다”는 저자의 체취가 짙게 배어났다.

文學世界社/A5신/270면/3300원

實錄 정순덕

정충제 기록

남편을 찾아나섰다가 지리산 빨치산으로 변모 투쟁했던 한 여성유격대원의 생생한 진술을 담았다. 1950년 입산에서부터 1963년 2인부대로 궤멸, 피투성이 중상자로 생포되기까지의 산 역사 속에 지리산 빨치산의 허구와 왜곡을 낱알이 드러내주고 있다. 한 무식한 산골처자가 역사의 치열한 정면에 나서게 되기까지의 결연한 삶의 노정이 기록돼 있다.

대제학/A5신/292면/3500원

등대선

지그프리트 렌즈 지음 / 김유진 옮김

독일의 동해안에 정박 중인 한 등대선을 배경으로 하여, 해외로 도주하려는 흥악बंध들의 예기찮은 승선과 이들에 대항하는 주인공 프라이타크의 용기있는 저항을 밀도있게 그린 장편소설.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용기와 신념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고통은 어떤 것인가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도서출판 준/A5신/222면/2800원

길가는 자의 꿈

칼릴 지브란 지음

시인이며 철학자이자 화가인 칼릴 지브란의 산문선집. 「눈물 그리고 미소」(A Tear and Smile)의 내용을 주로 하고, 또 다른 詩를 추가해서 엮었다. 「사랑에 대하여」 「아름다움에 대하여」 「슬픔과 기쁨에 대하여」 등 일상에 대한 인간영혼의 모습을 잔잔하게 들려주고 있다. 「인간의 찬가」 「꽃의 노래」 등 14편의 시와 그림도 함께 담았다.

동문선/A5신/280면/3400원

토론토의 하늘 아래

홍준수 지음

캐나다 토론토 교민사회에서 언론인과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의 수필집으로, 캐나다 한국일보의 「한백성 칼럼」을 통해 발표한 글들을 추려서 묶었다. 이질문화권에서 소외감과 좌절감이 시달리는 교포들의 애환, 이역 땅에서 서로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동족애 등이 짙게 스며든 글들이 실려 있다.

無礙/A5신/182면/3000원

意味論

R.M.Kempson 지음 / 許光一 외 옮김

언어학의 3대부문인 음운론, 통사론, 의미론 중에서 의미론분야의 대표적인 입문서로 꼽히는 작품. 지금까지 의미론에서 다루어온 여러가지 문제들을 광범위하면서도 깊게 고찰함으로써 철학적인 주제와 언어이론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밝힌 책이다.

翰信文化社/A5신/264면/4000원

욕기의 형성사

N.H. 스나이츠 지음 / 김성에 옮김

욕기가 한 저자의 작품이라는 전제 아래 욕기의 기원과 욕기저자의 목표를 규명한 연구서. 1963~64년 옥스포드대학에서의 강의 논고를 한데 묶은 것으로 고대문헌과 성서학자들의 다양한 학설을 인용하면서 욕기의 양식과 줄거리, 메시지 등을 고찰하고 있다. 저자는 욕기의 저자가 고통의 문제보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이해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 욕기를 새로운 신학적 안목으로 논하고 있다.

성바오로출판사/A5변형/176면/3000원

혁명만이 변화인가

브라이언 그리피스 지음 / 한화룡 옮김

1960년대 전세계적으로 일어난 학생운동 및 혁명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밝힌 글모음. 폭력혁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사회를 향한 기독교의 메시지를 5편의 글 속에 담았다. 브라이언 그리피스의 「법과 질서」 프레데릭 캐서우드의 「개혁이나, 혁명이나?」 등에서 폭력혁명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환상적인 생각」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A5신/130면/1800원

韓國100인 詩集

곽현숙 외 지음

불혹이 넘은 중견시인부터 고회가 넘은 원로시인 100인의 시를 모은 詞華集.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작가들의 생활 속의 슬기와 정서, 그리고 시대에 대한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있다. 곽현숙의 「아이리스」 감광림의 「이중섭 생각」 안도섭의 「그 손」 유안진의 「고란초」, 천양희의 「길을 찾아서」 등 100편의 시 세계와 만날 수 있다.

동원출판사/A5신/222면/3000원

고향 나그네

강위수 지음

능력 없고 배경 없는 이농민이 풍요와 현대화를 표방하는 대도시에 던져져 좌절하는 과정을 그린 「날다람쥐」, 변혁의 와중에서 잃어버린 고향의 옛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형상화한 「고향 나그네」 등 모두 6편의 중편소설들을 수록한 작품집. 작품의 배경으로 삼았던 장소들을 작가 자신이 직접 사진에 담아 함께 수록했다.

第三企劃/A5신/332면/3800원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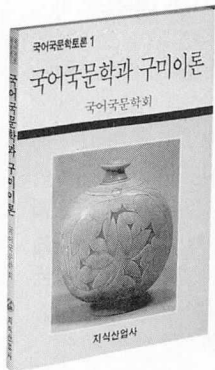
정종욱 외 지음

한미 양국관계의 역사,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반미의식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보수적 견해와 진취적 견해, 그리고 기존의 주장과 새로운 주장들을 폭 넓게 수록한 논문집. 「은둔의 나라 신대륙」(정종욱) 등 국내 학자 15인의 논문 16편과 「한미 안보협력의 장애」(래리 닉시) 등 외국 학자들의 논문 4편이 실려 있다.

논문집

국어국문학과 구미이론

국어국문학회 엮음



「국어국문학에 수용된 구미이론의 검토와 반성」이란 주제로 진행됐던 제31회 전국국어국문학회에서의 발표와 토론내용을 정리, 편집한 「국어국문학과 구미이론」이

국어국문학회(회장 황폐강) 편으로 간행됐다.

이 책은 특히 단순한 발표논문 묶음에 그치지 않고, 소주제별로 선정된 발표자의 논문작성, 질의 및 토론을 거친 발표자의 원고 보강, 질의자의 질의내용 성문화, 그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회자에 의한 정리의 순으로 다듬어진 논문들을 실었다는 점에서 이채로운 기획으로 평가된다.

수록논문은 「국문학연구와 서구문학이론의 수용검토」(윤홍로), 「분석비평연구의 흐름과 문제점」(김용직), 「신화학론의 수용과 과제」(유기룡), 「문학사회학이론 수용양상의 반성」(김준오), 「구미언어이론 수용의 역사」(남기심), 「전통문법이론의 수용과 국어연구」(홍윤표), 「구조주의와 생성이론」(임홍빈) 등.

지식산업사/A5신/182면/3000원

이색출판

한국전통문양집4

(구름무늬편) 안상수 엮음



한국인의 건축 및 생활도구에 사용됐던 전통문양을 재현하여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구성하는 일련의 작업을 벌여온 안그라픽스(대표 안상수)에서 「기하무늬」(1986)

「꽃무늬」(1987) 「도깨비」(1988)에 이어 「구름무늬」편을 「한국전통문양집」 넷째권으로 펴냈다.

이번 「구름무늬」에는 총 102종의 구름무늬를 의복과 생활용품, 건축 의장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수집하여 그 특징들을 시대와 용도별로 분류, 누구나 쉽게 한국의 전통문양을 접할 수 있도록 해설했다. 세계 시장을 겨냥하여 각 문양을 한글과 영문, 그리고 한자와 한글의 로마자로 표기해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데, 먼저 나온 책들이 이미 일본으로 수출돼 국내 서적문화의 해외보급에도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인의 생활과 풍속 속에 묻혀 있던 전통문양을 발굴하고 현대적으로 응용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서를 이해하고 소중히 기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안그라픽스/B4 변형/190면/25000원

소련경제사(1)

Alec Nove 지음

러시아제국 말기에서부터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소련의 경제적 변화 및 정치적 영향력과 상관관계 등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서술한 알렉 노브(英國 글래스고大 교수)의 대표적 저서. 사회주의체제인 소련이 혁명 후 겪은 시행착오, 이데올로기와 현실 사이의 괴리와 그 극복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명지출판사/A5신/222면/3500원

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

동아일보사조사연구실 엮음

88년 7월에 열렸던 '남북한 통일방안 심포지움'의 토론내용을 엮은 책. 1부는 7.4남북공동성명의 배경과 의의에 대한 金東成의 발표논문은 비롯, 申正鉉, 梁好民, 鄭鎔碩의 글과 토론내용을 담았다. 2부는 재야의 통일론을 개관한 金浩鎭의 글과 韓培浩의 「통일한국의 이념과 체제」를 실었다.

동아일보사/A5신/278면/3000원

우리들의 꿈

남녘 젊은 시인들 엮음

정식 계명은 '초록으로 북상하고 단풍으로 남하하는 우리들의 꿈'. 남북사이의 단절된 말의 물꼬를 더 궁극적으로는 통일에 이르는 길을 닦고자, 한반도 남녘에 사는 시인 82인이 젊은 북녘시인들에게 보내는 시들을 모아 수록했다. 「북의 시인에게」(고은), 「전화」(장정일), 「동서남북」(김광규) 등이 수록돼 있다.

푸른숲/A5신/240면/2500원

베를린 장벽

신창섭 지음

저자(MBC-TV 기자)가 최근 동서베를린을 여행하며 보고 들은 것들, 느낀 점들을 기록한 취재기.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거론할 때면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독일의 분단현실, 분단에 얽힌 흥미로운 비화, 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두루 살피고 있다.

열음사/A5신/212면/2800원

교육의 가막소

韓駿相 지음

도서 벽지 학교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향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분석한 책. 21세기로 향하는 현대문명 속에서 심각하게 낙후돼 있는 도서 벽지 학교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내실화를 위한 교육행정운영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등을 살폈다.

청아출판사/A5신/168면/2500원

中·蘇·東歐 進出企業의 國際契約

張孝相 지음

사회주의국가들의 투자나 무역, 기술이전 등에 관한 법제도의 연구없이 우리 기업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는 어렵다. 이 책은 중국과 동구권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을 위하여, 각국의 무역과 투자환경을 살펴보고 국제계약 전반에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소개했다.

韓國經濟新聞社/A5신/296면/7000원

所得分配의 理論과 現實

李俊求 지음

분배에 있어서 正義의 실체가 무엇인가라

는 본원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소득분배의 이론모형, 불평등도의 指數, 빈곤문제등 분배문제의 여러 측면을 살핀 연구서. 기존의 이론들을 총점검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현실에 적용시켜 그간의 성과를 재평가하고 있다.

茶山出版社/A5신/378면/7500원

계간지

문학과 사회 (89년 봄)

[특집] 정치경제학과 자본주의 ▲자본주의 경제의 과도기적 성격(김수행) ▲독점이론과 「제국주의론」(이용우) ▲공황이론과 붕괴론(유철규)

[비평·논문] ▲교육운동의 교육 사상성(한준상) ▲대중언론의 이데올로기(이효성)

[기획] 북한의 역사학과 문학 ▲북한 역사학의 특성과 고대사 서술(이기동) ▲북한 역사학계의 근대사 연구(박찬승) ▲북한문학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김윤식)

[오늘의 한국문학] ▲이야기의 뿌리, 뿌리의 이야기(김현) ▲뿌리뽑힌 삶과 웃음의 내면화(박혜경)

[시] 문충성/이광웅/최승호/고형렬/아재무/황인숙/이창기/차창몽

[소설] 양귀자/최수철/임철우

文學과知性社/A5신/394면/4000원

창작과 비평 (89년 봄)

[좌담] 민중예술운동, 이제부터의 과제(김운수, 정지창, 채희완, 김창남, 이성욱)

[평론] ▲통일운동과 문학(백낙청) ▲신동엽론(김종철) ▲1950년대 시의 물질(민영) ▲해체방직후 남북한 문학운동과 민중성의 문제(김용)

[논문] ▲남북한 역사인식의 같은 점과 다른 점(강만길) ▲1929년 원산총파업에 대하여(김경일) ▲한국 의료보장제도의 정치경제학적 이해(1)(김록호)

[발굴] 襄仁哲의 흑인시(노예해안 외 4편) ▲추도시(김광규, 임호린) ▲배인철의 흑인시에 대하여(윤영천)

[시] 문익환/김규동/허수경/김남주

[소설] 김영현/방현석

창작과비평사/A5신/424면/4000원

무크

문예운동의 현단계

[권두제언] 노동자문화운동의 발전을 기대하며(류혜정)

[특집] 보고문학 ▲보고문학의 활발한 창작을 위하여(신승엽) ▲보고통신문학 체문제(김오성) ▲그 뜨거웠던 마지막 보름의 일기(최현석) ▲5월에서 통일로(김남일)

[특별기고] 시와 혁명(김남주)

[시] 김준태/박영근/박근태/박영희

[소설] 박해강/오연호/강문립

[대본] ▲우리 승리하리라(한국여성노동자회) ▲새날을 여는 사람들(민중문화운동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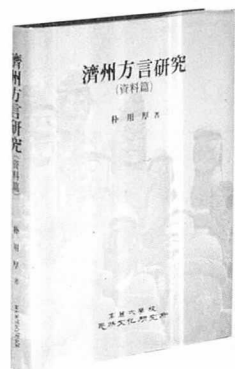
풀빛/A5신/482면/4500원



자료집

濟州方言研究(資料篇)

朴用厚 엮음



향토사학자 박용후씨(제주 대정중 교장)가 제주방언의 학술적 연구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집대성한 자료집 「濟州方言研究」 '자료편'을 최근 간행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멸되고 변모하는 제주방언을 제주지역의 토박이들로부터 수집, 정리한 이 책은, 제주방언 특유의 '古代性'으로 인해 국어사 연구의 귀중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문, 지리, 방위, 신체, 집, 음식, 농경, 기예, 무속, 짐승, 초목, 채소, 광물, 대이름씨, 썸씨, 움직씨, 그림씨, 어찌씨, 매김씨, 토씨, 제주도 땅이름, 옛말에 관계 있는 제주방언 등 총 38개 항목으로 분류한 가운데 가나다순으로 표제어를 배열, 해설했고, 권말에는 1,1000어의 표제어를 다시 가나다순으로 모은 '찾아보기'를 덧붙여 사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했다.

언어학뿐 아니라 민속학, 고고학, 사회학 등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며, 이 '자료편'에 이어 '고찰편'도 곧 출간될 예정이다.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A5신/376면/9500원

도서목록

'89 판매도서목록

한국출판협동조합 엮음



출판업계 유일의 共販기구로 1958년 창립된 한국출판협동조합에서 200여 회원사의 판매도서목록을 총정리한 「89 판매도서목록」을 펴냈다.

'88년간도서목록', '출판사별 도서목록', '책이름 찾아보기'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88년간도서목록'에는 조합 가입사가. 1988년에 펴낸 신간들을 출판사별로 정리, 지난해 간행된 우리책의 대체적인 흐름을 개관할 수 있다.

출판사별 도서목록에는 가나다순으로 배열한 각 출판사별 판매도서목록을 저·역자, 판형, 面數, 가격 등과 함께 심진분류법대로 정리했고, '책이름 찾아보기'에는 현재 서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책의 목록을 따로 정리하여 이름만 알고 있는 책이 어느 출판사에서 간행됐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회원사 위주로 편집된 판매도서목록이라는 한계를 지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책들이 팔리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만하다.

한국출판협동조합/A5/1792면/비매품